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MSC, 용선 선복량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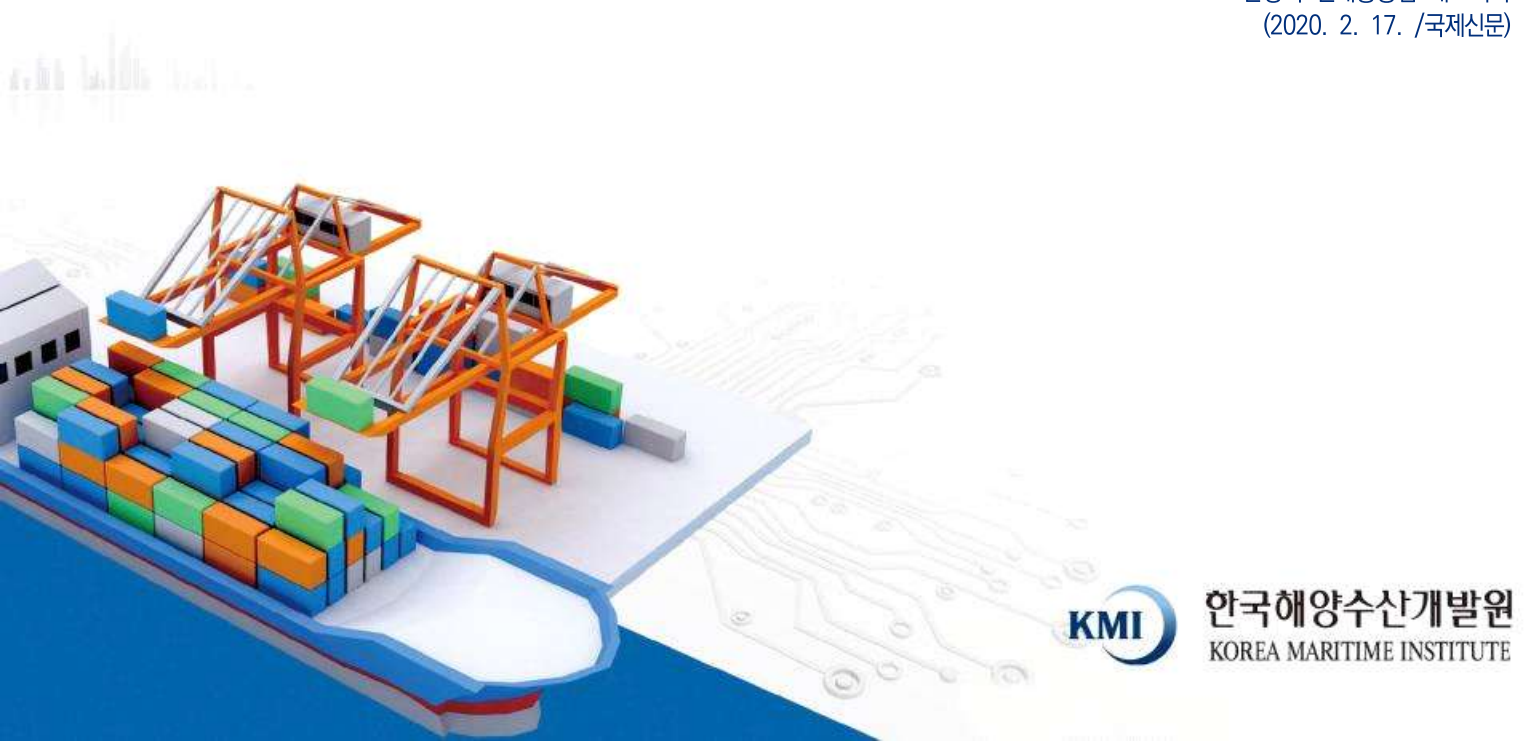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도 의약품 공급사슬 타격
2. EU, 항만 안전 프로그램 'Safeport' 투자 승인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감소 전망
4. 미국 배송업체, 부정확한 지도로 연간 약 6억달러의 물류비 추가 발생

명사 스피치

“지난해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변수가 많아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올해도 희망을 품으려면 우리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2020. 2. 17.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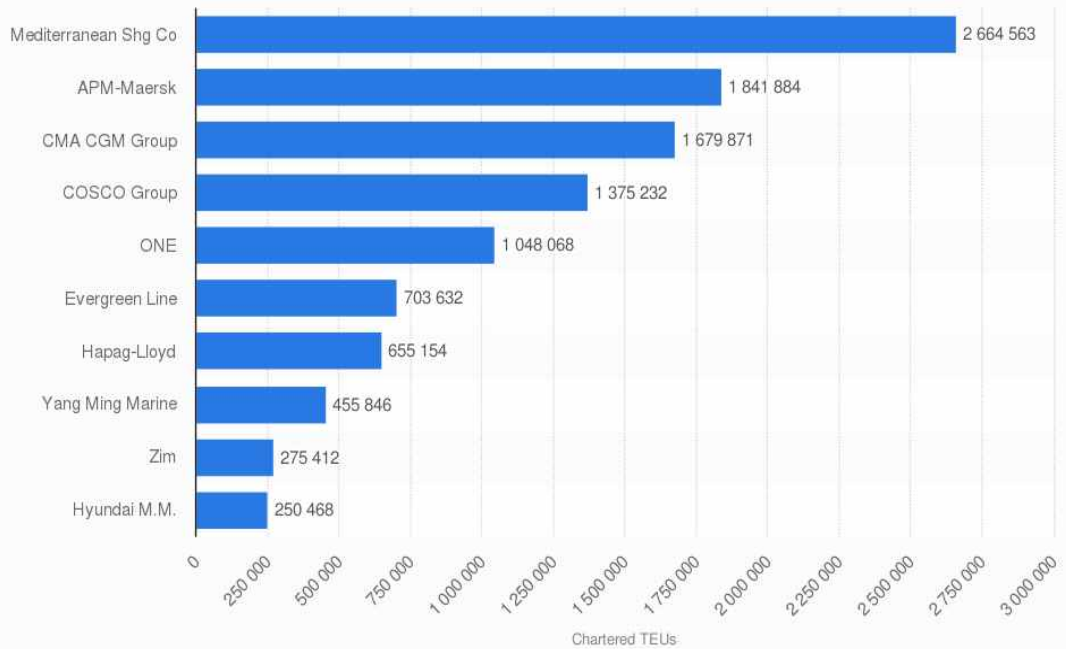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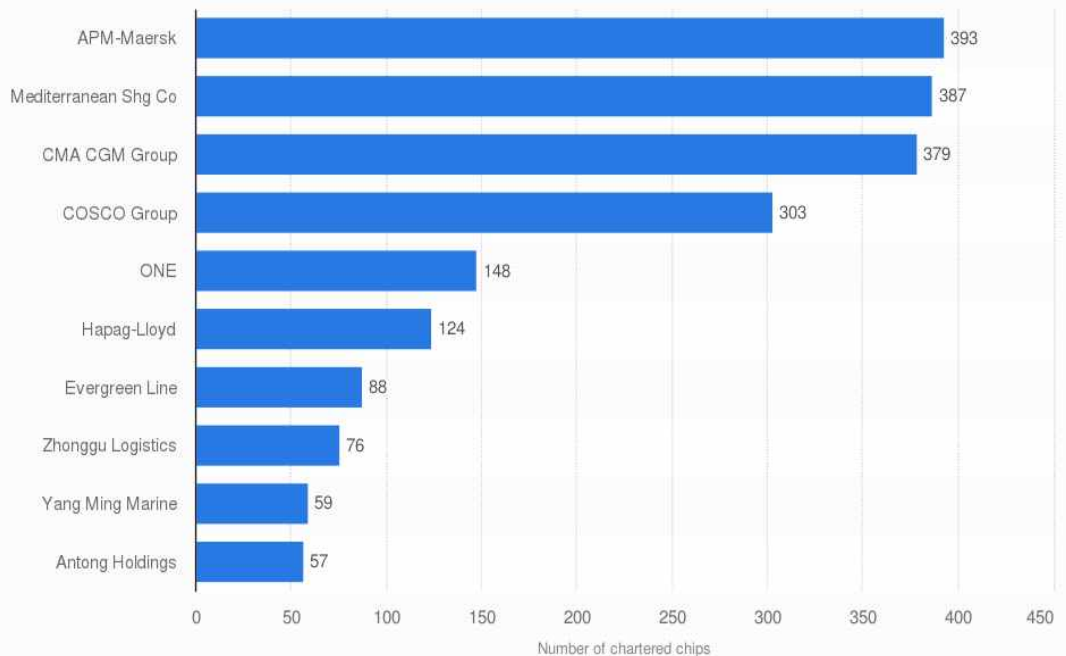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MSC, 용선 선박량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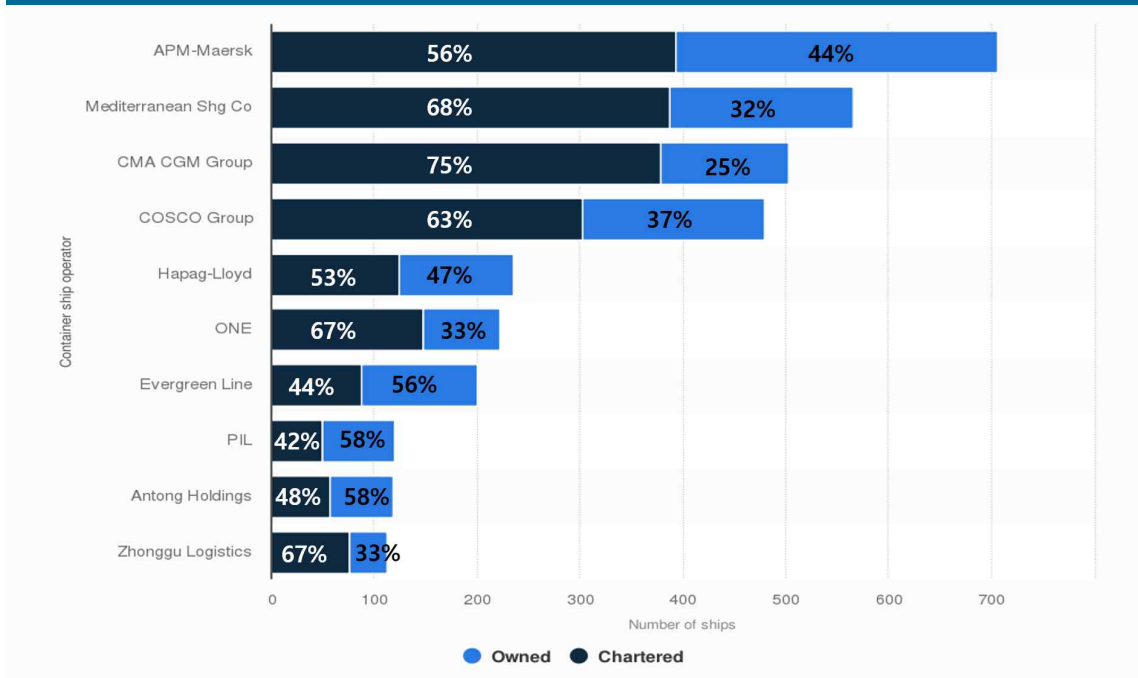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별 용선 선박량 순위(2020년 1월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별 용선 선박 수 순위(2020년 1월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별 사선 및 용선 선박 수 비율(2020년 1월 기준)



자료 : www.statista.com

- 통계정보 제공기업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글로벌 선사별 용선 선박량 1위는 MSC사 (2,664,563TEU)로 나타남
- 2위는 APM-Maersk사(1,841,884TEU) 3위는 CMA CGM사(1,679,871TEU)로 집계됨
- 한편 용선 선박 수 기준으로는 APM사가 세계 1위(393척), MSC사가 2위(387척), CMA CGM사가 3위(379척) 등으로 나타남
- 용선과 사선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운항 선박 수 1위인 APM사와 7위인 Evergreen사를 제외한 나머지 선사들의 용선 비중이 사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CMA CGM사의 경우 용선의 비중이 전체 선박 수의 75%에 달하고 있으며 MSC사의 용선비중은 68%로 두번째로 높은 용선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The world's leading container ship operators as of Jan 08, 2020, based on chartered TEUs”, “Number of chartered ships of the world's leading container ship operators as of January 08, 2020”, “The world's leading container ship operators as of January 08, 2020, based on number of owned and chartered ships”, (검색일: 2020.2.19)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도 의약품 공급사슬 타격

-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인도의 의약품 공급사슬이 큰 타격을 입음
 - 인도는 완제약을 만드는 의약품 원료인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공급사슬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자국 내에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게 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
 - 두통, 감기, 발열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인 파라세타몰(paracetamol)의 가격이 40%가 상승함
 - 또한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가격은 70%나 상승함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의약품 공급사슬이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첫째 주까지 중국의 생산라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인도의 의약품 산업은 4월에 심각한 타격(공급부족 현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의 가격이 4월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제약품(generic drugs)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중 12%가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사람과 상품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며 생산 자체를 중단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자국 내 의약품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생제, 비타민 및 호르몬을 포함한 12가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임
- 참고자료 :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companies/paracetamol-price-in-india-hiked-40-per-cent-as-coronavirus-affects-supply-chain/article30850218.ece>, 2020.2.18.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EU, 항만 안전 프로그램 'Safeport' 투자 승인

- EU는 항만 접근성 및 운영 측면에서의 해양안전 평가 및 제어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인 Safeport의 첫 단계 개발에 대한 투자를 승인함
 - Safeport라는 시스템은 Industry 4.0과 미래의 항만개념을 접목한 것이며, 관련 투자는 Horizon 2020의 중소기업용 기구인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됨
- Safeport는 항만의 접근성 또는 선박 운영에 관한 안전 및 효율성 관리, 긴급 상황의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를 항만 또는 터미널 당국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됨
 - Safeport 시스템은 항만, 선박 및 기상 데이터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사용가능한 분석 및 기술 연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
 - 또한 선박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운영 규칙을 제공하며, 응용의 재량권을 줄이고 더 많은 관련 변수(선박, 파형, 기상정보)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가상 미디어를 집중 활용함



출처 : Porttechnology

- 이 프로젝트는 유럽 수로의 감도 및 부두운영 관리에 해상과 육상 운송의 동시성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RIS II(CEF-UE)와 연계되어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2020.2.14.

이기열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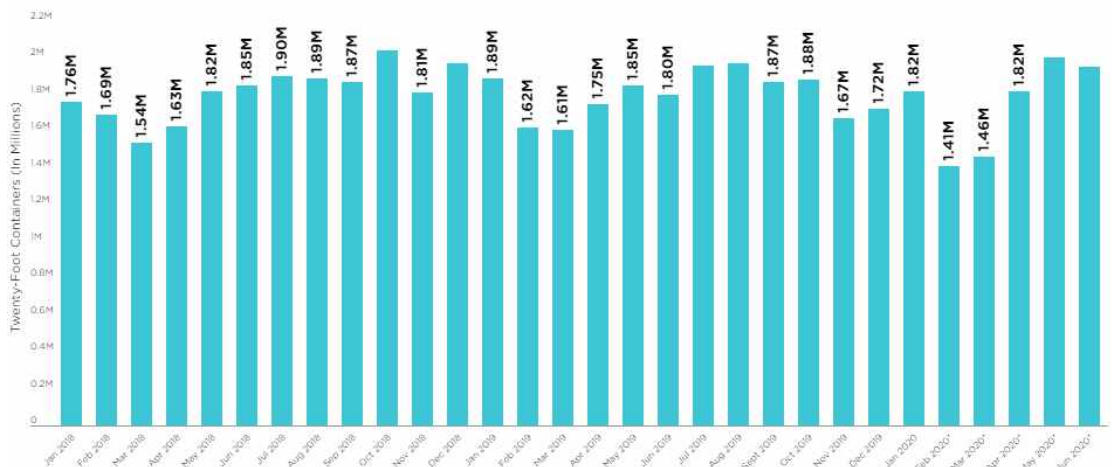
051-797-4670, kylee@kmi.re.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감소 전망

- 미국소매협회(NRF)는 2월 소매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소매협회(NRF: 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글로벌 포트 트래커(Global Port Tracker) 보고서를 통해 2월 미국 주요 항만의 소매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글로벌 포트 트래커는 소매 수입 물동량을 2월 150만 TEU, 3월 170만 TEU로 전망한 바 있음
 - 하지만, 글로벌 포트 트래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미국 항만 수입물동량 전망치를 하향 수정함*
- * 미국 항만 수입물동량 : 1월(전년동월대비 -3.8%, 182만 TEU)→2월(-12.9%, 141만 TEU)→3월(-9.8%, 146만 TEU)

미국의 월별 소매 수입 물동량(2018-2020)

Monthly retail imports 2018-2020 (TEU - Millions)



자료 : <https://nrf.com/media-center/press-releases/>(검색일: 2020.2.18.)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지속기간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4월부터 수입 물동량이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물동량 감소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적인 영향은 미국 정부 및 기업들이 중국 외의 지역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182만 TEU, 5월은 8.3% 증가한 200만 TEU 등으로 4월부터 對 중국 소매 수입 물동량 증가 전환 예상
 - 2020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047만 TEU로 전망됨

■ 참고자료 : <https://www.nrf.com/> 2020.2.18.

미국 배송업체, 부정확한 지도로 연간 약 6억달러의 물류비 추가 발생

- 스웨덴 스타트업 회사인 Mapillary사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정확한 방향, 부정확한 지도, 주차 위치 탐색 문제, 누락된 배송시간으로 인해 연간 약 60억 달러의 배송비가 추가 발생하고 있음
 - Mapillary사는 협업, 카메라,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여 지도제작을 자동적으로 고도화하는 이미지 플랫폼 회사임
 - 이 보고서는 자동차와 트럭을 모두 운영하는 219명의 미국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작성됨
 - 이 추정치에는 부정확한 지도 때문에 연간 25억 달러의 급여 낭비와 6억 1,100만달러의 추가 주행거리에 따른 손실비용이 포함됨
- 이 보고서는 부정확한 지도로 인해 발생하는 6가지 배송 비효율성을 지적함
 - 첫째 추가 주행거리(extra driving miles) 발생으로 설문조사를 한 운전자 중 78%가 잘못된 경로(폐쇄된 도로, 신호 불량 등)로 인해 하루에 5마일(8km) 이상 더 운전한다고 말했으며, 응답자의 22%는 15~25마일 (15~40km), 11%는 25~50마일(40~80km)의 추가 주행거리가 발생한다고 보고함
 - 둘째 정확한 하차 위치(exact drop-off location) 오류로 응답자의 72%는 배송을 위해 정확한 위치(건물 번호, 배송 입구 등)를 찾는 데 4분 이상 소요하며, 운전자의 36%는 7분 이상, 14%는 10분 이상 하차위치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배송시간대(delivery windows)를 맞추는 문제로 응답자의 96%가 배송시간대를 기다리는 데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76%는 15분 이상, 35%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주차 가능 여부(parking availability) 문제로 응답자의 62%가 주차장을 찾는데 4분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2%는 7분 이상, 10%는 1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주차권(parking tickets) 문제로 응답자의 57%가 매달 여러 개의 주차권을 받아야 하고, 33%는 8장 이상의 주차권을 발급받았다고 답함
 - 마지막으로 미인도된 화물(undelivered packages) 회수 문제로 응답자의 86%가 미인도 화물을 회수하고, 운전자의 38%는 일주일에 25개 이상의 화물을 회수한다고 보고함
- 배달시간 단축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정확한 지도가 물류효율성 향상의 핵심도구가 됨
 -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일부 문제(코너 주변 주차, 공사를 피하거나 건물 출입구를 찾기 위한 경로 변경)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 붐으로 인하여 도로에 더 많은 배송 트럭을 배치해야 하는 물류회사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다고 Mapillary사의 CEO Jan Erik Solem은 밝힘
 - 그는 보고서를 인용해 부정확한 지도는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더 나은 지도는 매일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배송을 가능하게 해서 개별 기업들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만든다고 밝힘
-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보고서는 기술과 정책의 변화가 신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로 인한 교통 물동량이 향후 1~3년 내에 도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 지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Mapillary사와 같은 회사들의 노력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교통 혼잡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일 뿐이므로, 시 당국, 관할기관, 물류회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아마존, DHL, UPS 등 대형 물류업체들은 교통혼잡과 주차문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뉴욕시에서는 화물용 자전거 사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택배 운전자들이 주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뉴욕시까지 도착하는 데는 여전히 정확한 지도가 요구됨
- 또한 물류회사들은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은 효율성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UPS 배달 기사들은 약간의 지연을 없애려고 좌회전을 피하는 경로계획을 수립함

■ 참고자료 : supplychaindive.com, 2020.2.11.; prnewswire.com, 2020. 2. 11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e@kmi.re.kr